

# “흥행배우? 그냥, 운이 좋은거죠”

‘닥터 프리즈너’ 김병철

뒤늦게 찾아온 전성기  
주연, 부담감 크지만  
연기폭 넓어져 계속 하고파

요즘 잘 된다 싶은 드라마라면 꼭 보이는 얼굴이 있다. 배우 김병철(45)이다. 2003년 영화 ‘황산벌’로 데뷔한 그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김은숙 작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에서 송중기의 직속 상관 역으로 출연하면서다. 이후 ‘도깨비’(2016), ‘군주’(2017), ‘미스터 션샤인’(2018), ‘SKY 캐슬’(2018), ‘닥터 프리즈너’(2019)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뒤늦게 찾아온 전성기를 만끽 중이다.

최근 시청률 15.8%를 찍으며 종영한 KBS 2TV ‘닥터 프리즈너’에선 이름 그대로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교도소의 료과장 선민식 역을 맡아 남궁민(41)과 팽팽한 기 싸움 연기를 펼쳤다.

22일 강남구 청담동 카페에서 만난 김병철은 ‘흥행 배우’라는 세간의 평가에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운도 좋았던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안목이 자기보다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대본이 갖는 힘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연기하는 역할이 얼마나 흥미로운지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선민식은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인데, 굽혀야 할 때 굽혀야 하는 유연함이 있는 인물이에요. 한 사람 안에 다른 면이 공존한다는 지점이 흥미로웠고,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닥터 프리즈너’ 이전까지는 신스틸러(scene stealer·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주연 이상으로 주목받은 조연)였으나 ‘닥터 프리즈너’에선 남궁민, 최원영(43)과 함께 ‘쓰리톱’ 주연을 맡았다.



그는 주연 배우로 발돋움한 데 대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면에서 부담과 책임감이 생겼다”면서도 “사실 그런 부담감보다는 흥미가 더 크다. 부담감은 잘 해보려고 할 때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연기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연을 하고 싶다”며 연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닥터 프리즈너’는 나이제(남궁민 분)와 선민식의 대립 구도로 흘러가던 전개가 중반부 이후부터 나이제와 이재준(최원영)의 다툼으로 축이 바뀐다. 이에 대해 김병철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던 부

분”이라고 설명했다. “나이제-선민식-이재준 세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면 긴장감이 유지돼 좋을 거라 생각했죠. 점이 3개면 복합적으로 여러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점이 2개면 시소처럼 단순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후반부로 가면서 선민식에 무게감이 약해진 것 같고,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양자 대결 구도로만 흘러서 약간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그는 상대역으로 인상적인 연기 대결을 펼친 남궁민에 대해 “경험이 많고 연기에 대한 고민도 많더라. 같이 얘기하면 내가 고민하던 지점을 일깨워주곤 하며 ‘이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경험이 많다는 생각을 했

다”고 치켜세웠다. “SKY 캐슬’에도 함께 출연했던 최원영에 대해선 “SKY 캐슬’에선 같이 연기를 많이 안 해서 잘 몰랐지만 이번엔 같이 호흡하면서 좋았다. 다양한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 연기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드라마가 연속으로 히트하며 ‘흥행 배우’ 타이틀이 붙은 데 대해 그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붙는 말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웃었다.

“잘 된 작품들 자리에 어찌다 보니 가 있었던 거지, 제가 그 드라마들을 끌고 온 게 아니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리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연출뉴스

#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여순사건’ 조명 특집 다큐 ‘동백꽃 편지’ 31일 전국 방송

올해로 71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가 제작 방송된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개국 23주년을 맞아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특집 다큐멘터리 ‘동백꽃 편지’(기획 김선균, 제작 조미영·편수민·양복순)를 전국 방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다큐멘터리 ‘동백꽃 편지’는 여순사건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원인과 함께 여순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연좌제에 걸려 제대로 꿈을 펼치지 못했던 유가족들의 한과 슬픔을 담아냈다. 또 여순사건의 발생원인이기도 했던 제주 4·3항쟁의 역사와 함께 유가족들은 어떻게 치유하고 슬픔을 위로받고 있는지를 들여보며 여순사건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배우 문소리씨가 맡아 작품의 완성도와 친밀도를 높였다.

연출진은 지난해 10월 다큐멘터리 기획을 시작해 7개월에 걸쳐 여수와 순천지역의 민간인 피해자 유가족들과 파병을 거부한 군인들을 제압한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와 함께 제주 4·3항쟁 유가족들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수행인의 재심을 가가이서 도운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관계자 등을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관계자는 “71년이



여수유족회 김수연(75세)씨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제작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제공〉

라는 긴 세월동안 부모를 잃고 학업을 중단한 채 한 많은 세월을 살아야했던 유가족들에게 국가는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고, 젊은 세대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돼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며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 현빈-손예진, tvN ‘사랑의 불시착’ 주연

tvN은 동갑내기 배우 현빈(37)과 손예진이 ‘별에서 온 그대’로 유명한 박지은 작가의 신작 ‘사랑의 불시착’(가제)에서 호흡을 맞춘다고 22일 밝혔다.

이 작품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녀를 숨기고 지

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장교 리정혁(현빈)의 러브스토리를 그린다.

‘별에서 온 그대’ 등 히트작들을 써낸 박지은 작가가 대본을 맡은 데 이어 ‘굿 와이프’, ‘로맨스는 별책부록’ 등을 만든 이정효 PD가 연출하게 돼 기대를 모은다.

을 하반기 방영 예정. /연출뉴스

##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전국시대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름만만	30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밤(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KBS 창작동요대회 수상곡	00 단, 하나의 사랑(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10 원손잡이 아내(재)	00 12 MBC 뉴스 25 장애인식개선 프로젝트 우리동네 피터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토크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어사 쿵도령 2		25 푸르기 식자교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시노스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5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BBB삼총사의 모험 5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55 양코르 MBC 스페셜	00 서울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 시상식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15 보토스 패밀리 30 주간연예수첩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40 한국인의 밥상	50 원손잡이 아내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봄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특집 봉하마을에서 온 편지 55 오늘밤 김제동	00 단, 하나의 사랑	05 이상한 나라의 머느리	00 절대 그이
[11]	35 UHD 승터 4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투게더 1~2부	10 색션 TV 연예통신 1~2부	10 접속! 무비월드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스포츠 다이어리 30 문화사책	20 나이트라인 50 테마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7:30 뽀롱뽀롱 뽀로로
05:30 통일길	12:1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00 원더볼츠(재)
06:20 세계테마기행	13:10 최고의 요리비결	19:1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7:00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윤숙자의 김치누를적과 맥주구이〉	19:30 EBS 뉴스
07:30 출동! 슈퍼윙스	13:4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00 당동명 유치원1~2	14:30 엠바와 함께 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책과 핑거	14:4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두근두근 이란 4부 땅굴마을 메이마드 가는 길〉
08:45 칼랄라 뿌우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두다다콩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부엌기행 4부 백 년의 시간 저장고〉
09:30 몰랑	15: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21:50 다큐 시선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6:15 출동! 슈퍼윙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30 한국기행(재)	16:30 칼랄라 뿌우(재)	23:55 EBS 스페이스 공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감자밥과 달걀찜〉	16:45 당동명 유치원1~2(재)	25:10 과학 다큐-비온드(Beyond)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두다다콩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당대 과제는 능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겠다. 48년생 충동을 자제한다면 화를 면하리라. 60년생 마주 보고 대하면 쉽게 풀 수 있다. 72년생 목전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다. 8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81
丑	37년생 완전히 반전 될 수도 있는 기운이다. 49년생 듣기 좋은 말이 독이 될 수도 있다. 61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말라. 73년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니라. 85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8, 11
寅	38년생 확실히 분간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50년생 결실을 목적으로 두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일이 생긴다. 62년생 아예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74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드러날 것이다. 86년생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않으면 평생을 안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4, 97
卯	39년생 우선 차분하게 지켜본 연후에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강운을 조절할 줄 알라. 63년생 현실성이 없으니 아예 꿈도 꾸지 말라. 75년생 사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다. 87년생 현명하게 처신해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1, 44
辰	40년생 패자를 부르는 날이다. 52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64년생 참으로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76년생 절실히 바라던 일이 흡족하게 이루어지겠다. 88년생 하다가 조정하면 될 것이니 일단 시작해 놓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0, 57
巳	41년생 방도를 세우지 않으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53년생 현상 유지만 하여도 선방한 것이다. 65년생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77년생 시각적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89년생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하더라도 대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93, 10

## 5월 23일(음 4월 19일 庚申)

午	42년생 예상 밖의 판국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54년생 주어진 기회를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66년생 괜히 헛고생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78년생 불현듯만 나타난다. 90년생 융통성만 있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55, 63
未	43년생 적절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55년생 대응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리라. 67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79년생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다. 91년생 재물이 늘어날 수도 있는 운세이다. 행운의 숫자 : 21, 43
申	44년생 의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겠다. 56년생 잔술밭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형국이다. 68년생 추진 방향을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느니라. 80년생 확인한 만 할 해도 예방한다. 92년생 하나의 이권 아래에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모여 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41
酉	45년생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57년생 향후의 판세 전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69년생 요체를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느니라. 81년생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면 결실이 있을 것이다. 93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66, 79
戌	34년생 원인 요소가 해소 될 수도 있는 여건이다. 46년생 분수에 맞게 임해야만 복도 따르는 법이다. 58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70년생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 82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 하라. 행운의 숫자 : 19, 93
亥	35년생 조금만 할애하면 가볍게 조지될 수 있는 문제이다. 47년생 실속 있는 관계여야 한다. 59년생 국민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판세이다. 71년생 멀지 않은 장래가 될 것이니 철저히 준비하라. 83년생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성가시게 한다. 행운의 숫자 : 53, 3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